

## 여대생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취업준비 실태 - 일 대학 여학생을 중심으로\*

김 분 한\*\* · 김 정 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발달, 그리고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대졸 여성의 비율은 점차 증가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는 사회참여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김지영, 2000).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25명 중 1명은 대학생이며, 우리나라 대학생 3명 중 1명(36.3%)이 여학생이다. 1980년 당시 4년제 대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22%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는 28.5%, 2001년에는 36.2%를 차지하였다(통계청\_b, 2003; 민무숙 외, 2002). 그러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율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남성 대졸자의 취업율이 61.6%인데 반해, 여성 대졸자의 취업율은 56.7%로 남성보다 4.9%가 낮은 수준이다(통계청\_a, 2003). 또 대졸 여성 취업자수는 1998년 현재 전체 여성 취업자의 15.9%에 불과하며 대졸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9.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김선영, 1999). 즉, 대졸여성들의 경우, 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통해 경제력 확보는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으로 인해 취업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인적자원에 못 미치는 하향취업을 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과 동등하게 채용관문을 통과한 후에도 배치 및 훈련, 승진 및 승급, 임금, 퇴직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적인 고용관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고학력 여성취업의 현실이다(구명숙과 홍상욱, 2003). 따라서 향후 대학에서의 여대생을 위한 취업 및 진로교육은 더욱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대생의 취업준비의 특성은 남학생과는 다르다. 여대생은 대학생이라는 고학력자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 남성과는 다른 진로발달을 경험하고 취업요구나 요구하는 취업정보도 다르다(김선영, 1999).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남성과 동일한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는 동안 노동시장이 여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학을 졸업한 후의 진로에 대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기회구조를 인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행위를 하게 되며, 이는 졸업 후 취업직종에 대한 선택에서부터 어떠한 통로를 통해 취업을 하는가하는 취업경로의 문제, 그리고 취업을 위한 준비와 구직을 위한 정보획득의 방법, 취업준비의 강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학생과는 차이를 나타낸다(Marsden, 1994; 모혜정, 1995; 김선영, 1999; 김형만, 1998).

따라서 여대생은 남학생과는 다른 진로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여대생의 취업조건과 취업준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여대생이 직업세계로 원활히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취업준비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여대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국의 학생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자들에게 여대생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여대생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진일보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취업준비 실태를 분석함을 통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여대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3. 용어정의

##### 1) 취업

\*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학술연구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취업이란 일자리를 얻는 것,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2000),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취업에 대한 태도

취업에 대한 태도란 취업에 대해 가지는 일정한 입장이나 생각으로서(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2000),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도구로 대학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 및 분야, 직장선택시 우선고려사항, 성공적 직장생활을 위한 조건, 선택한 직업과 전공의 일치도, 졸업 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 여학생 취업에 대한 인식 등을 측정할 것을 의미한다.

## 3) 취업준비

취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반적 또는 세부적인 준비과정과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정도로서(이선민, 1994),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도구로 취업준비 시작여부, 취업을 위한 준비항목 및 취업준비 방법, 취업정보 획득원, 교내 취업센터 방문정도, 취업준비에 대한 자가평가, 취업을 위해서 학교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측정할 것을 의미한다.

# II. 문헌 고찰

## 1. 취업세계로의 이행 전망

현재 우리는 세계화·개방화의 높은 물결 속에서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 살고 있으며(이학용, 1999), 하루가 다르게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환경 속에서 직업세계 역시 다양화·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의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대학교육 또한 이같은 사회의 발전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능은 연구와 교수, 그리고 사회봉사의 세 가지로 규정된다. 이를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과 연구의 기능 외에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교수)함으로써 국가사회에 봉사하기를 기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힘들게 양성된 많은 고급인력들이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실업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김정환, 황혜자, 설기문, 박영태 및 최은영, 1994). IMF 관리체제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국가 경제구조의 악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 구조조정, 정리해고, 부도 등으로 국내 취업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대학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학용, 1999; 장원섭, 김선화, 민선향, 및 김성길, 2002).

실제로 한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주요 대기업 가운데 2005년에 신입사원 채용인원을 늘릴 계획인 곳은 13%에 불과하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도 17%에 그쳐 청년실업난이 올해보다 더 심화될 전망이다. 또 주요 101개 대기업의 내년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보다 채용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회사는 13개사(12.9%) 뿐이며, 반면 20개(19.8%) 기업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40개(39.6%) 기업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영, 2004). 이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 및 대졸자의 취업난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 2. 여대생의 취업

근래 교육경제수준과 남녀평등의식 증가에 따라 여성의 교육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이와 함께 대졸 여성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 재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1980년 22.4%, 1990년 28.5%, 2000년 35.8%, 그리고 2003년 현재는 36.8%로 꾸준히 증가해왔다(통계청, 2003\_b). 그러나 대졸 여성의 취업자수는 2002년 현재 전체 여성 취업자의 18.0%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학력별 여성인적자원 활용정도를 비교하면 중졸 이하 여성인력의 활용율은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나 고졸이상 여성인력의 활용율은 낮은 편이며, 실제로 우리나라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인력활용정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통계청, 2003\_b; 김태홍, 2003). 이는 남성의 경우,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졸이하 남성취업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졸 남성취업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김태홍, 2003)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취업한 경우에도 직위가 낮거나 임금이 낮은 직종, 혹은 전통적인 여성직종에 편중되어 취업하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취업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고학력 여성의 취업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졸여성의 노동은 독립적 개인으로 활동할 기회와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남녀평등의 기본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김지영, 1999)

이처럼 상대적으로 여대생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김선영(1999)은 대졸여성이 대졸 남성과 동일한 인간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노동시장이 성이라는 귀속적 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단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은 성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외부 노동시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각 부문 내에서도 소수의 한정된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자 대졸자들은 고학력자에 포함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고학력을 요구하는 내부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명숙과 홍상욱(2003)은 여성인력의 양성구조가 많지 않은 초중고 시절부터 성별분리적인 진로지도와, 여성들이 비교적 진로결정을 늦게 하고 그에 따른 취업준비도 미약하다는 점, 여성들의 낮은 취업의식을 기업들이 여성을 기피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것 등이 여대생들의 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장에는 대졸여성의 진입을 막는 구조적인 제약과 뿌리 깊은 가부장적 성문화에서 비롯된 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존재하며,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자신들의 취업이나 경력에 대한 동기가 사회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등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여성취업에 부정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과 하향취업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지영(1999)은 기업의 성차별적 채용관행, 미약한 관련법·제도 및 국가의 정책, 여성개인의 노력 및 실력부족 등이 대졸여성의 취업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여대생의 취업은 남학생들과 비교할 때 여대생 자신이 가지는 문제들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미래학자 해리텐트는 몸으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고대, 중세사회는 물론 동력을 만들어 내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힘을 필요로 했던 산업화 시대에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야만 했으며, 남자의 지시에 따르고 보조적인 일에 만족하고 같은 일을 하고서도 임금에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부터 미래사회에서는 육체적 노력이나 단순기술을 요하는 좌뇌적인 직업은 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고 인류는 우뇌적인 직업 즉 보다 창조적이고 감성적, 창의적인 직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문실, 1999). 여성은 여성성(Feminity),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으로 대표되는 3F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이 각광을 받는 정보화·서비스·지식산업분야에서 그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문실, 1999; 김봉순, 2001).

이처럼 이미 시작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는 양상을 띄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경제구조의 서비스화와 소프트화가 가속화되고 이들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가 개발되며 인력수요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들 분야는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며 따라서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높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은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과 효율적인 활용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구명숙과 홍상욱, 2003).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2

|         |                      | f    | (%)  |
|---------|----------------------|------|------|
| 소속대학    | 공과대학                 | 15   | 10.9 |
|         | 의과대학                 | 9    | 6.6  |
|         | 인문과학대학               | 29   | 21.2 |
|         | 사회과학대학               | 29   | 21.2 |
|         | 자연과학대학               | 12   | 8.8  |
|         | 법과대학                 | 2    | 1.5  |
|         | 경제금융대학               | 4    | 2.9  |
|         | 경영대학                 | 9    | 6.6  |
|         | 사범대학                 | 12   | 8.8  |
|         | 생활과학대학               | 7    | 5.1  |
|         | 음악대학                 | 5    | 3.6  |
|         | 체육대학                 | 4    | 2.9  |
| 학년      | 1학년                  | 32   | 23.2 |
|         | 2학년                  | 32   | 23.2 |
|         | 3학년                  | 42   | 30.4 |
|         | 4학년                  | 32   | 23.2 |
| 아버지의 직업 | 자영업                  | 39   | 29.1 |
|         | 판매서비스직               | 11   | 8.2  |
|         | 기능직                  | 1    | 0.7  |
|         | 사무기술직                | 21   | 15.7 |
|         | 경영관리직                | 19   | 14.2 |
|         | 전문자유직                | 11   | 8.2  |
|         | 농·수·축산업              | 4    | 3.0  |
|         | 교육공무원                | 12   | 9.0  |
|         | 기타                   | 3    | 2.2  |
| 무직      | 1                    | 0.7  |      |
| 어머니의 직업 | 자영업                  | 18   | 13.1 |
|         | 판매서비스직               | 13   | 9.5  |
|         | 기능직                  | 6    | 4.4  |
|         | 사무기술직                | 5    | 3.6  |
|         | 경영관리직                | 1    | 0.7  |
|         | 전문자유직                | 13   | 9.5  |
|         | 교육공무원                | 6    | 4.4  |
|         | 기타                   | 5    | 3.6  |
| 전업주부    | 70                   | 51.1 |      |
| 평균 월수입  | 2,000,000원 미만        | 13   | 10.4 |
|         | 2,000,000~3,000,000원 | 44   | 35.2 |
|         | 3,000,000~4,000,000원 | 34   | 27.2 |
|         | 4,000,000~5,000,000원 | 17   | 13.6 |
|         | 5,000,000원 이상        | 17   | 13.6 |

표 3

따라서 여대생들의 취업의식 및 취업준비 실태, 그리고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봄으로써 여대생들의 진로 및 취업의식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실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취업에 대한 태도 및 취업준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자

서울시 소재 일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 142명을 임의 추출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 및 취업준비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심영희, 윤영민, 김명희 및 신현구(2001)의 연구와 민무숙, 허현란 및 김형만(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설문문항을 일차 완성한 이후, 간호학 교수 2인, 간호학 박사생 2인, 사회학 박사생 1인, 그리고 여대생 커리어개발 사업관계자 및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는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5문항 이외에 취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12문항, 취업준비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7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취업에 대한 태도 n=142

| 항목                       | 구분               | f            | (%)  |      |
|--------------------------|------------------|--------------|------|------|
|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              | 관리직              | 17           | 13.4 |      |
|                          | 사무직              | 43           | 33.9 |      |
|                          | 서비스·판매직          | 5            | 3.9  |      |
|                          | 기술직              | 19           | 15.0 |      |
|                          | 창업               | 1            | 0.8  |      |
|                          | 기타               | 17           | 13.4 |      |
|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              | 전문직              | 25           | 19.7 |      |
|                          |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 22           | 17.7 |      |
|                          | 정보통신, 벤처기업       | 15           | 12.1 |      |
|                          | 금융, 보험           | 2            | 1.6  |      |
|                          | 언론, 출판           | 19           | 15.3 |      |
|                          | 무역               | 7            | 5.6  |      |
|                          | 광고, 이벤트          | 9            | 7.3  |      |
|                          | 법조계              | 21           | 16   |      |
|                          | 건축, 디자인          | 8            | 6.5  |      |
|                          | 교육               | 16           | 12.9 |      |
|                          | 의료, 보건           | 11           | 8.9  |      |
|                          | 오락, 레저, 스포츠      | 4            | 3.2  |      |
|                          | 예술               | 3            | 4.8  |      |
|                          | 기타               | 6            | 2.4  |      |
|                          | 직장 선택시 우선고려사항    | 보수           | 4    | 3.1  |
|                          | 장래성              | 43           | 33.1 |      |
|                          | 전공일치             | 5            | 3.8  |      |
|                          | 안전성              | 12           | 9.2  |      |
|                          | 자신의 적성           | 62           | 47.7 |      |
|                          | 여가시간 보장          | 2            | 1.5  |      |
|                          | 기타               | 2            | 1.5  |      |
|                          |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조건 | 업무능력         | 91   | 69.5 |
|                          | 외국어 능력           | 18           | 13.7 |      |
|                          | 사교성              | 11           | 8.4  |      |
|                          | 학맥과 인맥           | 10           | 7.6  |      |
|                          | 기타               | 1            | 0.8  |      |
|                          | 선택한 직업과 전공의 일치도  | 전공과 완전히 일치   | 45   | 43.3 |
|                          |                  | 전공과 조금 관련 있음 | 44   | 42.3 |
| 전공과 거의 관련 없음             |                  | 11           | 10.6 |      |
| 전공과 전혀 관련 없음             |                  | 4            | 3.8  |      |
|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 | 더욱 능력을 쌓는다       | 71           | 55.5 |      |
|                          | 기대수준을 낮춘다        | 13           | 10.2 |      |
|                          | 학업을 계속한다         | 15           | 11.7 |      |
|                          | 직업훈련을 받는다        | 1            | 0.8  |      |
|                          | 결혼한다             | 1            | 0.8  |      |
|                          | 유학간다             | 26           | 20.3 |      |
| 기타                       | 1                | 0.8          |      |      |

### 4. 자료수집 및 분석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간 본 연구를 위해 미리 훈련을 받은 연구보조원들이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작성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직접 배부해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을 마치기를 기다려 직접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해 정리하였고, 취업에 대한 태도 및 취업준비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 순위 등으로 정리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문과학대학 학생과 사회과학대학 학생이 각각 2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공과대학생으로 10.9%, 그리고 법과대학생이 1.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 학생이 30.4%로 가장 많고, 1,2학년 학생이 각각 23.2%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가 29.1%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도 무직을 제외하고는 1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전체의 6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대상자의 취업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표 2>와 같다.

### 1) 대학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

전체 여학생의 64.9%가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 여학생의 2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같은 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심영희 외(2001)의 연구에서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던 여학생이 51.5%였던 것에 비해 13.4%가 증가한 수치로서, 3년 전과 비교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상당수 증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대학 졸업 후 즉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53.9%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즉시 취업을 원한다는 응답이 37.1%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 즉시 취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희망진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38.9%가 '진학'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자격증이나 고시준비를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과 유학을 갈 계획이라고 한 학생, 아직은 미정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16.7%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대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영희 외(2001)의 연구에서 졸업 후 즉시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학생의 67.0%가 진학을 하려 한다고 응답해 1순위를 차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나 3년 전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 2)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3이 넘는 학생(33.9%)들이 사무직에 취업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술직으로 취업하겠다는 학생이 15.0%로 그 다음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은 전체의 0.8%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영희 외(2001)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78.3%가 전문직에 취업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해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사무직 10.6%로 이번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3년 동안 전문직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반면 사무직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3년 전이나 이번 연구결과에서나 창업을 하겠다는 여학생은 가장 낮은 비율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 창업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

또, 향후 취업을 원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17.7%의 학생이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순위를 점하여, 사기업 종업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퇴직연령인 50~60대보다 훨씬 젊은 30~40대의 연령에 조기 퇴직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언론·출판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5.3%로 2순위,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이 12.9%로 그 다음 순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 보험 또 법조계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1.6%로 가장 낮은 순위를 점하였다. 이는 구명숙과 홍상욱(2003)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20.4%가 공무원을 희망하고, 20.1%가 교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1,2위를 차지한 것, 또 같은 대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영희 외(2001)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15.2%가 교육계로 취업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해 1순위, 공무원·정부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3.1%로 2순위를 차지한 것 등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는 결과이며 동시에 여학생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는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투자가 덜 필요한 공무원이나 교육관련직을 선호한다고 한 구명숙과 홍상욱(2003)의 주장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직장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자신의 적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7.7%, 장래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3.1%로 나타나 80%에 해당하는 학생이 직장 선택시 자신의 적성과 직장의 장래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같은 대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영희 외(2001)의 연구 결과 여학생의 54.8%가 적성이라고 응답해 1위, 23.9%의 학생이 장래성이라고 응답해 2위를 차지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적성과 흥미'가 48.0%로 1순위, 장래성이라고 응답한 여학생이 24.7%로 2순위, 그리고 보수라고 응답한 여학생이 7.2%로 3순위를 차지한 구명숙과 홍상욱(2003)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5)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조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9.5%의 학생이 업무능력이라고 응답해 1순위를 차지했으며, 13.7%의 학생이 외국어 능력이라고 응답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대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영희 외(2001)의 연구에서 68.3%의 여학생이 업무능력이라고 응답해 1순위, 14.7%의 여학생이 외국어 능력이라고 응답해 2순위를 차지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6) 선택한 직업과 전공의 일치도

대학과정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향후 직업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 대학에서의 전공과 어느 정도나 관련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42.3%가 전공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과 조금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전체의 4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영희 외(2001)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50.5%가 전공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응답했었고, 전공과 약간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도 36.4%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순위 상에는 변함이 없으나 전공과 선택한 직업의 일치정도가 다소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전공과 선택한 직업의 일치도가 10.3%인 것(통계청\_b, 2000)과 비교할 때는 무척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졸업 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

졸업 후 원하는 곳에 바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55.5%에 이르는 학생이 자격증이나 시험 등을 통해 더욱 능력을 쌓겠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순위를 점하였고,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 및 전문가 과정을 밟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20.3%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생이 졸업 후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에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외국어 능력을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는 심영희 외(2001)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67.8%가 자격증, 시험 등을 통해 더욱 능력을 쌓겠다고 응답해 1순위를 차지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8) 여학생 취업에 대한 인식

대상자들의 여학생 취업에 대한 인식이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 여학생 취업에 대한 인식 n=142

| 항목                     | 구분                             | f   | (%)  |
|------------------------|--------------------------------|-----|------|
| 여학생 취업의 상대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 | 매우 어렵다                         | 37  | 27.8 |
|                        | 조금 어렵다                         | 82  | 61.7 |
| 여학생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유   | 비슷하다                           | 10  | 7.5  |
|                        | 어렵지 않다                         | 4   | 3.0  |
|                        | 기업이 여성채용을 기피                   | 59  | 50.9 |
| 여성이 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   | 여성들의 취업준비 미숙                   | 8   | 6.9  |
|                        | 여성들의 의식에 문제                    | 7   | 6.0  |
|                        |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부족              | 39  | 33.6 |
|                        | 기타                             | 3   | 2.6  |
| 여성채용시 고충주요인            | 결혼 후 육아문제                      | 72  | 53.3 |
|                        | 남성과 비교되는 승진지연이나 제한             | 25  | 18.1 |
|                        |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 17  | 12.6 |
| 우선고려하는 요인              | 직장과 가사병행의 어려움                  | 21  | 15.6 |
|                        | 학벌                             | 25  | 18.5 |
| 우선고려하는 요인              | 학교성적                           | 13  | 9.6  |
|                        | 자격증 및 어학능력                     | 71  | 52.6 |
|                        | 외모                             | 25  | 18.5 |
| 매너                     | 1                              | 0.7 |      |

(1) 여학생 취업의 상대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

여학생의 취업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는 61.7%의 학생이 '조금 어렵다'고 응답해 1순위를 차지했고,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이 27.8%로 2순위를 차지해, 전체 학생 중 89.5%에 이르는 학생이 여학생의 취업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무숙 외(2002)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59.0%가 자신의 성별이 취업에 있어 약간 이상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 그리고 심영희 외(2001)의 연구결과에서 여학생의 88.8%가 여학생이 취업하기가 남학생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2) 여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유

여학생의 취업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50.9%의 학생이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에 원인이 있다'고 응답해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3.6%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여성취업 장애의 원인이 여성 자신의 능력이나 준비부족이라기보다는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를 입증하는 결과로 '여성들의 취업준비가 미숙하다(6.9%)', '여성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6.0%)'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대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영희 외(2001)의 연구결과 여학생의 75.6%가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에 원인이 있다'고 응답해 1순위를 차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단지 그 비율이 20%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로써 여대생의 대부분은 여성의 취업이 더 어려운 이유가 여성 자신의 개인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이 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

또, 여성이 취업을 하였을 때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는 53.5%의 학생이 결혼 후 육아문제라고 응답해 1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남성과 비교되는 승진의 지연이나 제한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8.5%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은 결혼하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2.6%, 직장과 가사병행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87.6%가 여성들의 결혼 그리고 결혼에 뒤따르는 육아와 가사문제 또는 결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이 여성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여성채용시 고용주가 우선 고려하는 요인

고용주가 여성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인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52.6%의 학생들이 자격증 및 어학능력이라고 응답해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학교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6%로 2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라고 응답한 학생이 18.5%로 학벌이라는 응답과 함께 그 3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같은 대학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영희 외(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여학생들의 36.3% '자격증 및 어학능력'이라고 응답해 1위, 29.2%의 학생이 '외모'라고 응답해 2위, 22.9%의 학생이 '학벌'이라고 응답해, 자격증 및 어학능력이나 학벌이 여전히 3순위 내에 존재하고 있음은 일치하지만, '외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본 연구결과에서 10%이상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 3. 취업준비 실태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준비 실태는 <표 4>에 나타나 있다.